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온 정부
	배포일시	2019.12.19(목) 총 5매(본문 4매, 참고 1매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영건, 주무관 박성준 · ☎ (044)201-3835, 3840, 3841
보도일시		2019년 12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동차 튜닝 활성화 속도...추가대책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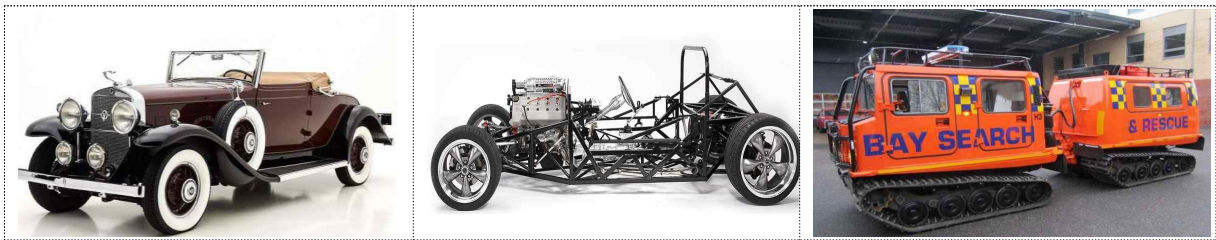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(8.8)의 구체적 실행계획·보완방안 마련
- 수제차 제작·이벤트 활성화·일자리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키로

- 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8.8일 발표한 ‘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’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, 튜닝 창업지원,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 - 기존 대책(8.8)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, 튜닝 승인·검사 면제대상 확대(10.14),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(10.28)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.
 - 이와 함께,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, 업계·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.

① 소량생산자동차 제작 및 활성화 지원

- 수제 스포츠카, 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*의 생산을 위해 지난 '15.12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,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.

* 해외에서는 클래식 자동차, KIT Car 등 다양한 형태 자동차 판매



-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,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*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·인증을 위하여 업체에 사전 컨설팅, 절차 안내,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내년 상반기 중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등 입법예고 예정

② 튜닝 이벤트 · 문화공간 확보

- 현재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관련 행사가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나, 대중적 활성화에는 한계점*이 있고 다양한 튜닝 동호회, 일반인 등은 이벤트 및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.

* 고가 차량 위주 →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소비로 연결되기 곤란
성인 남성위주의 콘텐츠 구성 →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기기 곤란

- 이에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 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 우선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(한국교통안전공단)에서 총괄·

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(국토교통부 산하),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,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확대·시행할 계획이다.

- * 모터스포츠, 전시회, 중소기업 홍보, 일반인 체험, 캠핑카 공간확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, 지역 관광 및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

3 특화된 튜닝 전문인력 양성

□ 대부분의 튜닝 업체들은 영세하여 현장에서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실정으로,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.

-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, 컨설팅 시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,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,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:1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.



- 튜닝 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으로,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·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.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·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튜닝 업체종사자 및 예비종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④ 튜닝업 창업 및 기술지원

□ 현재 튜닝분야에 특성화된 취업·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, 초기 창업자는 튜닝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○ 이에 내년 중에 ‘튜닝 일자리 포털’을 구축하여 튜닝에 특화된 취업·창업 정보제공,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.

- 숙련된 튜닝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술발전 및 창업 아이템 창출에 기여하고, 튜닝교육과 업체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

○ 아울러,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튜닝 창업·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,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 및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의 비용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.



□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“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”면서,

○ “특히,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*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”고 말했다.

* 미국(대부분 주에 Off-road park 운영), 독일,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를 테마로 한 종합 문화공간 존재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(☎ 044-201-3840),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조동식 부장(튜닝 교육, 컨설팅 관련, ☎ 054-459-78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(8.8) 6 추가대책 비교

◇ 기존 대책(8.8)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한 소량생산차 규제개선, 창업지원, 전문인력 양성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, 튜닝 이벤트·문화공간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

기존 대책(8.8)		추가대책	
○ H/W적 규제혁신		○ S/W적 지원강화	
○ 제도권내 업계 Needs 충족		○ 마니아/다양한 계층 Needs 충족	
튜닝 규제체제 혁신	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튜닝 금지사항의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캠핑용자동차 차종확대 ·화물↔특수차 차종변경 튜닝 허용 ■ 튜닝 승인면제하고 검사만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승인 48천건(30%) 면제효과(1차 '20) ·승인 23천건(14.4%) 면제효과(2차 '21) 	수제차 제작 및 활성화 지원	소량생산차 제작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험기준 상당부분 완화
	튜닝승인·검사 예외사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승인 20천건(12.5%) 면제 효과 		제작·인증 등 다각적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앙·지자체·유관기관 협업으로 성공적 제도정책 지원
	튜닝인증부품 확대		튜닝 이벤트·문화 공간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튜닝 이벤트 활성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, 지역관광 연계 등 ('20년 시범개최→확대 추진) ■ (가칭)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복합문화 공간
	소량생산 자동차 규제 완화 ※규제완화 기본방향 제시		특화된 튜닝 전문인력 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맞춤형 튜닝 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■ 튜닝 업체 컨설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뉴얼 개발, 세부방안 마련 등
튜닝 지원기반 마련	제도기반 마련 및 정비	튜닝업 창업·기술 지원	튜닝 맞춤형 창업·취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튜닝 일자리 포털'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튜닝에 특화된 정보제공 · 노하우 공유, 일자리 매칭 등 ■ 창업·취업 설명회 개최
	튜닝카 성능·안전 시험센터 건립		튜닝 기술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형별 설계도면 전산화 ■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
튜닝 인식개선	창업지원 및 튜닝 전문인력 양성 ※교육, 컨설팅 등 기본방향 제시		
	튜닝 문화저변 확대		
	올바른 튜닝유도 및 불법튜닝 근절		